

일주문



익사사 대응보전 낙성 인왕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스님은 14일 오전 11시 약사사에서 대응보전 낙성식 및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중임연수 교육 남정 총화종 총무원장 스님은 12일 오후 4시 총본산 수진사 대법당에서 '제19회 중앙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중요서 문화재 애호활동 현성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장 스님은 9월 23일 서울 종로공원에서 '문화재 애호활동' 행사를 펼쳤다.



법장 스님 초청법회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스님은 9일 오후 4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을 초청해 고승법회를 연다.



복지프로그램 사례 발표 해충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장은 5일 부산 양정 청소년수련관에서 '2001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 발표회'를 연다.



불우이웃 성금 전달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9월 25일 법화삼매당에서 불우이웃 90명에게 10만원씩 총 9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남구노인회관 관장 취임 종선 울산 내원암 주지는 24일 불교계 위탁운영시설인 울산 남구노인복지회관 제2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어린이 전래놀이 행사 지현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은 9월 23일 해운대 송림공원에서 '제6회 선재어린이 전래놀이' 행사를 가졌다.



대학총장협 회장에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9월 21일 열린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대각서서 '법구경' 특강 송위주 한국외국어대 인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오후 7시30분 종로 3가 대각사에서 <법구경> 특강을 한다.

“템플 스테이 긍정검토”

정대 스님 - 남궁진 문화장관 환담

남궁진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이 9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예방했다. 남궁진 장관은 "지난번 방북단 문제가 있었을 때 원장님께서 국민화합의 디딤돌이 되어주셨다"며 "원장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불교계를 위해 성의를 다해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대 스님은 "문화관광부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인 만큼 불교계를 많이 도

와 달라"며 "불교계에서 추진중인 템플 스테이사업은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할 뿐 아니라 숙박난을 해소하고 웰드킴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배석한 포교원장 도영스님도 남궁진 장관에게 템플스테이 건의서를 전달하며 "웰드킴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해 전통사찰을 개방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숙박난 해



남궁진 문화부 장관과 조계종 정대 스님이 환담하고 있다.

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진 장관은 "사업의 타당성

에 대해 충분히 문화관광부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해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원우 기자 wkwk@buddhapa.com

“수도권 시민 휴식처 보호 마땅”

북한산 관통로 대책위 상임대표 지섭 스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는 조계종과 관음종을 비롯한 불교종단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단체와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해야만 정부도 불합리한 노선을 포기하고 대안노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와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가 9월 26일 의정부포교원에서 공동 출범시킨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및 대안노선 건설 및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로 선출된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지

섭스님(홍법사 주지)은 '서울의 허파'에 구멍을 뚫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노선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정신적 휴식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북한산은 조선 개국 이래 서울의 중심을 지켜온 어머니와 같은 산입니다. 대기오염이 극심한 수도권에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북한산에 터널을 뚫고 8차선 고속도로를 놓는 것은 사찰의 수행환경 훼손을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섭스님은 "도로공사는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가 제안한 대안노선이 길어 산림훼손이 많다고 하나, 그 지역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산으로 산림훼손 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도봉산, 수락산 등 녹지자연 등급이 높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과 야산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현 노선은 의정부 일대의 교통정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섭스님은 "지금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서울의 자량인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고 자랑스런 선택"이라며 정부의 노선변경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m@buddhapa.com

“회원불심 반석처럼 다질터”

철도청 본청 불자회 정동진 초대회장



예의 근본으로 삼아 인간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수련이기 때문이다.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합일을 추구하기에 단순한 동작이 아닌, 심법(心法)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문 씨는 스스로 불연(佛緣)이 깊다고 말한다. 자주 절에 다니며 스님들과의 교분을 쌓고 있다는 것. 문정숙 씨는 인사동에 현무도원을 열어 현무도의 대중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02)722-7094 이경숙 기자

“철도청불교협의회 산하 조직들이 해당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반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9월 22일 철도청 본청 불자회 창립법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동진(철도청 기획본부장) 씨. 정 회장은 철불협 산하 불자회의 법회 형태와 운영의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는 현황이 파악이 되면, 지역 회원의 활동에 능동적인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자회 내에서만 끝나는 신행이 아닌 봉사 활동이나 환경 보호와 같은 외부적인 신행으로도 나아가 수 있다는 정 회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당초 철불협은 이번 법회를 계기로 연합회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무리한 개편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연합회 결성에 앞서 가정 '연합회 준비운영위'를 설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이던 고모 슬하에서 자라 전남 함평 보광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정동진 회장은 "서원했던 불자회가 창립된 만큼 불자회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oo@buddhapa.com



“현무도 수련 참선과 비슷”

삼랑측에서 시연 문경숙 씨

“전등사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여는 삼랑성 역사 문화축제로서 석사진경(薛師進慶)차원에서 현무도를 시연하게 되어 매우 뿌듯합니다.” 우리나라 고대서부터 내려온 전통 기(氣)무예 '현무도(玄武道)'의 유일한 전수자로 알려진 중산(中山) 문경숙 씨는 오는 12~14일 열리는 삼랑성 역사 문화 축제에서 사뭇 기운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움을 한껏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현무도를 선보인다. 문 씨에 따르면 현무도는 수련방법이 참선수련과 비슷하다. 현무도는 자연과 인간, 몸과 마음을 하나로 생각하여 그 합일된 조화를 무



월간 '등불' 창간 20주년 축제

통도사주지 현몽은 9월 23일 설법전에서 월간 <등불> 발행 20주년을 기념하는 등불 축제를 거행했다.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법회에 이어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됐다. 현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중포교 매체로서 <등불>이 더욱 발전해 불교포교의 중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 10회 맹원문화상 시상식



제10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원은 9월 24일 복지법인 승가원 2층 회의실에서 제10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각성스님이 역경상을,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석정스님이 예술상을, 구 이상선 시인이 문학상을 수상했다.



종교연합선도기구 정기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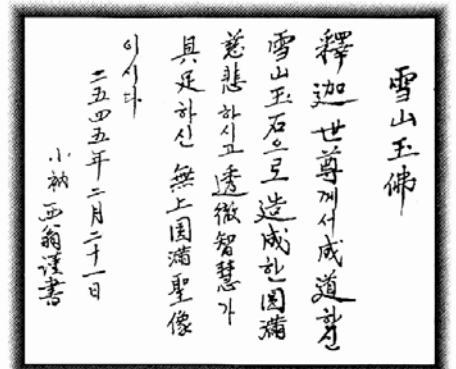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대표 진월 스님은 9월 24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가톨릭대 박일영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내에서 진행될 종교간 대화는 빈부 차별을 소멸하고 사상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원종복지관 '장애우 나들이' 행사

부천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2일 장애우 가족과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장애우 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번 나들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과 경복궁의 근정전, 경회루, 교대전 등을 관람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복궁 관람에는 거례문화답사연합회 우리궁궐지킴이들이 참여, 장애우들의 안내를 도맡았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추진서

